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청년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6. 내 주는 살아 계시고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곱게 물들어가는 산야를 바라보며 당신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빚어내는 삶의 풍경들은 모질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 앞에 서있는 낯선 존재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찬탄했던 본래의 마음은 간데 없고,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사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주십시오. 좁아진 우리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오니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0:12 ..... 인도자

♠ 교 독 문 ..... 1. 시편 1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한성건 선생 II.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17.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다함께

성경봉독 ..... 잠 17:1 ..... 인도자

..... 녹5:1-11 ..... 안종일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마른 떡 한 조각의 행복 ..... 김재흥 목사

..... 신뢰의 도약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판단과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스스로 절망의 나라를 만들어 저와 이웃을 가두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하지도 않은 일을 자랑하는 허풍보다는, 해놓은 일마저 조심스레 숨길 줄 아는 겸허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 강좌(33)	신명기 강해(16)
기도 : 김훈동 집사	기도 : 표명화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정현주 집사

<b>9월</b>	영접위원	한완식	김준호	이동천	김필순	박혜경	진정숙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용진	임창선	배삼순	김성자

## 베네딕트의 동굴

사람살이가 있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까막까치가 만든다는 오작교는 어찌면 이야기에 대한 은유인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가물거리는 호롱불빛을 밝혀놓고 아랫목에 웅기종기 둘러앉아 나누던 이야기는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든든한 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이지 않게 쌓여 심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른들이 가마니를 짚다고, 베를질을 한다고 건넌방으로 가시고 나면, 이야기는 형과 누나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라야 대개 도깨비 이야기의 변주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교우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사진들을 들춰보았습니다. 20여년 전, 푸르던 날의 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는 익숙하지만 낯선 젊은이입니다. 20여 년을 뛰어넘어 내가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건강해 보이네.” 그는 그저 말없이 나를 바라봅니다. 내 팔에 안겨있던 아이는 군대를 다녀온 건강한 청년입니다. 사진 속의 얼굴들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들을 떠올리는 순간 함께 했던 시간이 아슴푸레 되살아났습니다.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지요? 돌아보니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교우들은 자신들의 소박한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면서요. 글썬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파라솔까지 등장하니까 제법 잔치 분위기가 나더군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침개를 부치던 여선교회 회원들의 모습이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무서운 아줌마 틈에 끼어 숨쉴 발휘를 하던 정원석 선생도 근사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흐뭇했습니다. 가끔 못 생긴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만남 그 자체가 주는 흥겨움과 감동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지요? 누군가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나는 이전의 그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와 만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통속성에 항거하면서 남들과 떨어져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존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홀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추억이 있었기에 그 무료한 시간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공존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것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지요? 자기의 욕망을 다른 이에게 투사하지 않은 채,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각자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존을 함께 경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의 경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런 축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축제의 주인이 될 때 교회는 우리 존재를 풍성하게 하는 삶터가 됩니다.

로마에서 70킬로미터쯤 떨어진 수비아코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성인의 기도 동굴 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3년간이나 동굴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베네딕트의 덕행과 영성을 흠모하는 이들이 모여 베네딕트 수도회를 이루었습니다. 베네딕트의 전기를 쓴 그레고리오 대종은 그의 기도 동굴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미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여인은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으로, 계곡으로, 숲으로, 들로 쫓다녔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하여 쓰러질 때만 쉴 뿐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베네딕트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난 다음날 아침, 그는 언제 미쳤었냐 싶게 멀쩡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남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우 만남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베네딕트의 동굴과 같은 곳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잔치 끝의 허전함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석)

## 노염의 뿌리를 뽑아야

내가 사막에서 살 때에, 골풀들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아서, 또는 나무를 빨리 베려는 데 벨 수 없어서, 또는 빨리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화를 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나의 노염의 대상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었는데, 심지어 무생물을 향해서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표면적으로 노염을 표현하는 것을 삼갈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노여워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입을 통제하여 성난 말을 삼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원한을 깨끗이 제거하고 형제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편이 더 유익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노염의 뿌리를 뽑아 버린다면, 더 이상 증오나 시기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요일3:15).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칼에 찔려 살해된 사람의 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미움에 찔려 흘린 피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동 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에 따라 상이나 벌을 주십니다.

— 《필로칼리아 1》 중에서, 4세기의 수도자 존 카시안의 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용진 박효선 안정숙 박애순 박성수 김애경  
노정숙 정완수 김재광 임창선 이인웅 이광용 형인순 박옥순 김혜권

### 월정헌금:

김명순 김성자 김남중 오복순 이갑재

### 감사헌금:

김기석 김용정 조순자 윤수진 권혁순 박혜경 이병섭 김옥혜 강인식  
김국희 이재문 표명화 김수경 황경순 구영섭 김재광 김용진 박효선  
이현순 권경자 고재중 고린도속 무명3

### 생일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이순정 허재영

### 구도헌금: 김재흥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하재두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건화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순복	
시온	박효선	허정윤	이인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오성희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이명희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안경숙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청년주일** :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시110:3)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9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3. **한가위** : 모든 것이 풍성한 중추절기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돌아보고, 마땅히 지향해야 할 생의 목표를 새롭게 가늠해보는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추석 아침에 드릴 <가정 예배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각자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4. **주차** : 가급적이면 주일에는 몸이 불편하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 마당에 앉아 대화의 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5. **연합속회** : 10월 1일(금)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엠마오 속 식사준비 - 베다니 속
6. **봉사** : 연합속회 후 애니아의 집에 목욕 봉사하러 갑니다. 가을은 봉사의 결실을 맺는 달이기도 합니다.
7. **신앙실천** : 쉬운 평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자기만 쉬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가사 일을 분담하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 주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 부음 : 이명옥 집사님이 21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임수했습니다.

\* 헌화 : 김근중 권사 정옥영 집사 (결혼기념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